

# 여 2·야 1곳 우세 속 '맥빠진 선거' 되나

### 여야, 4·24 재보선 공천 이번주 중 마무리

### 민주 노원 병 '무공천'·박대통령 '불통인사' 변수

여야가 이번 주중 4·24 재보선 공천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지만, 국회의원 재보선 관세의 윤곽이 차츰 드러나면서 다소 싱거운 선거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26일 4·24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부산 영도에 출마할 후보로 김무성 전 원내대표를 공천했다. 또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출마하는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후보로 허준영 전 경찰청장, 충남 부여·청양 재선거 후보로 이규구 전 충남도지사를 각각 공천했다.

이들 3명의 후보는 오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후보

로 확정된다.

서울 노원 병에 무공천을 결정한 민주통합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충남 부여·청양 지역의 공천 후보를 공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부산 영도에 김비오 지역위원장을 전략 공천했다. 진보정의당에서는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 김지선 후보가 서울 노원 병 공천을 받아 이미 예비후보로서 선거 운동에 나섰고, 통합진보당은 부산 영도에 민병렬 최고위원의 공천을 확정했다.

이처럼 여야가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재보선도 지난해

4·11총선과 유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 노원 병은 진보정의당이,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청양에서는 새누리당이 각각 승리를 거뒀다. 서울 노원 병에서는 안 전 서울대 교수의 승리를 점치는 전망이 지배적이며,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청양은 새누리당 출마자가 유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박근혜 정부 출범 초반 불거진 '불통·코드 인사'가 선거 변수로 떠오르면서 야권의 '정권견제론·정권 경종론'이 어느 정도 바람을 불러 일으킬지 주목된다.

안철수 후보가 노원 병에서 어느 정도의 바람을 일으킬 것인지도 관심사다. 안 후보가 기대 이상의 바람을 일으킬 경우, 야권 재편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 후보도 나

오지 않은 상황에서 신승을 거둘 경우, 안철수 신당 창당 등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안철수 전 교수의 출마에 따라 새누리당의 승리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닌 묘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안 전 교수가 얼마만큼의 바람을 일으키느냐가 관건 포인트"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공심위는 당내 논란에도 이번 4·24 재보선에서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 무공천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도읍 의원은 "아직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없는 상태지만 공심위의 의결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며 "만약 최고위가 (무공천 결정의) 재심의 절차를 결정한다면 공심위가 재심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 당권도전 나선 강기정 의원 인터뷰

## "분권형 대통령제로 새정치 실현"

5·4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출마에 나선 강기정 국회의원(북구 갑)은 운동권 출신으로 광주를 대표하는 젊은 피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바 있는 강 의원의 당권 도전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과감한 도전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과연 현실성이 있는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류가 아니라는 것이다. ▲주류의 개념을 잘 모르겠다. 당의 결정에 충실한 사람을 주류라고 한다면 주류가 맞다고 할 수 있다. -이용섭 의원과의 후보단일화 논의. ▲좀 기다려봐야겠다. 후보 등록 마감을 지켜봐야 한다. 추미애, 신계륜 의원이 당권 도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결국 컷-오프를 통한 단일화가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만 반 김한길 연대 등 인위적 연대는 당원과 국민들의 동의받기 어렵다. -이 의원과 본선에서 만난다면. ▲그때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전혀 구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노원 병 무공천에 대한 입장. ▲민주당이 후보를 일찍 공천했어야 한다. 그래야 당도 후보도 명분있게 단일화 등에 나설 수 있었다. 무공천 결정이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그럼에도 당이 결정하면 받아들이고 싶다. -안철수 신당에 대한 입장. ▲호남과 민주당은 분당과 분열의 후유증을 이미 겪은 바 있다. 민주당의 혁신을 통해서 하나되는 과정이 돼야 한다. 안철수 신당 창당은 매우 어렵고 창당패셔도 안 된다. 안철수 전 교수가 민주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권 도전 배경에 차기 광주시장을 노리는 수가 들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단 한번도 광주시장 도전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주류 책임론 제기

### 전당대회 왜곡 시키는 것

### 이용섭 의원과 단일화

### 좀 더 지켜봐야 겠다

보다는 실천이 담보되고 지방자치와 분권의 가치에 어울려야 한다. 이에 대해 많은 당원들과 대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바람을 일으켜 승리하겠다.

-주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비주류가 당권을 잡기 위해 가공의 범주류를 만들어 대립 전선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을 지낸 김한길 후보야말로 주류에 있었던 인물 아니냐. 이번 주류와 비주류의 교체를 혁신으로 내세우거나 대선 책임론 공방을 몰아가는 그 자체가 이번 전당대회를 왜곡시키고 있다.

## 민주 노원병 무공천 당내 여진 적지않다

민주통합당이 4·24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기로 방침을 확정지은 후 당내에 여진이 적지 않다.

특히 당장 무공천에 반대해온 범주류 측 당권주자들은 26일 안 전 교수에 대한 견제에 나서는 등 현 지도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반(反)김한길 연대'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이들은 이날 노원병 무공천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이용섭 의원), "당의 기초가 허물어졌다"(강기정 의원)고 비판하면서 안 전 교수를 겨냥했다. 전대 유권자인 당원들의 표심을 겨냥한 측면으로도 해석된다.

이 의원은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나와 비주류 주자인 김한길 의원이 안 전 교수 지지세력까지 겨냥한 대통령을 강조한 데 대해 "안 전 교수와 공동신당을 만들고 안철수신당과 합당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당원을 분노케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통합할 때가 아니고 혁신할 때로, 혁신 후 안 전 교수에게 입당을 권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안철수 현상"은 민주당의 혁신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판살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안 전 교수는 분열이나 정치적 계산보다 힘을 합쳐 어떻게 새정치를 할 것인지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pkp@kwangju.co.kr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전대 2위 그룹 각축

### 여론조사, 김한길 선두...추미애·이용섭·강기정 추격

민주통합당의 5·4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부 여론조사기관들이 실시한 대의원 여론조사 결과 2위 그룹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지난 23일 민주당 대의원·정책대의원 3308명을 대상으로 ARS 휴대전화 전수조사(오차한계 95% 신뢰수준에 ±1.7%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대표 적합도에서 김한길 의원이 41.0%로 선두를 차지했다. 이어 ▲추미애 의원 21.1% ▲이용섭 의원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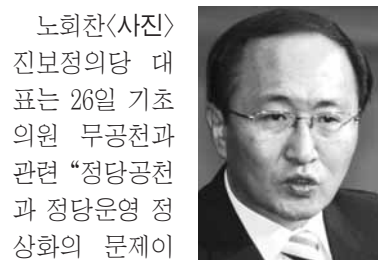
▲강기정 의원 10.4% 순이었다. 호남권에서는 김한길 의원이 37.5%로 앞섰고, 이어 이용섭 의원 25.4%, 추미애 의원 15.9%, 강기정 의원 14.4%로 나타났다. 대의원 그룹에서는 김한길 41.6%, 추미애 20.5%, 이용섭 17.1%, 강기정 10.0%의 적합도를 보였으며, 정책대의원 그룹에서는 김한길 33.9%, 추미애 28.7%, 강기정 14.3%, 이용섭 12.7%로 조사됐다. 또한, 김한길 의원을 상대로 추미애, 강기정, 이용섭 의원과의 1대1 가상대

결에서는 추미애 의원이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인 휴먼리서치가 지난 21일 전국 대의원 1019명을 대상으로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전수조사(95% 신뢰수준에 ±2.94%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김한길 의원이 33.1%, 이용섭 의원 11.3%, 추미애 의원 11.0%, 천정배 전 의원 10.0%, 강기정 의원 7.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에서 이용섭 의원이 36.2%, 강기정 의원 29.3%, 김한길 의원 15.5%, 추미애 의원 6.9%, 천정배 전 의원 3.4%로 집계됐다. 전남에서는 김한길 의원 29.4%, 이용섭 의원 25.5%, 추미애 의원 9.8%, 천정배 전 의원 9.8%, 강기정 의원 3.9% 순이었다. /최원일기자 cki@

## 목포 온 노회찬 "박대통령 호남 탕평인사는 빈말"



노회찬(사진) 진보정의당 대표는 26일 기초의원 무공천과 관련 "정당공천과 정당운영 정상화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바랍직한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다"고 밝혔다. 시국 강연 차 26일 목포를 방문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는 목포시의 회 시민의 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의원 무공천이 이뤄지면 특정지역에서는 특정 번호를 뽑은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정당투표제도가 무너지는 상황이 초래돼 헌법 소원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표는 호남민심 확대와 관련 "호남 출신 인사를 대거 등용해 대

합정치를 펴겠다는 공약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철학과 방식에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목포 동부시장을 방문, 민생투어를 실시한데 이어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나주 혁신도시의 모든것 솔로몬과 함께 하세요!!

**중심상업지역(위치최고·착한가격)**

- 대지 1080㎡ - 매매가 24억5천
- 대지 1099㎡ - 매매가 24억2천
- 대지 705㎡ - 매매가 14억5천
- 대지 1200㎡ - 매매가 24억5천
- 대지 1080㎡ - 매매가 26억5천 외 다수물건

**근린생활용지(위치최상·착한가격)**

- 대지 688㎡ - 매매가 13억1천
- 대지 545㎡ - 매매가 10억7천 외다수물건

**점포주택용지(약 100필지 보유)**

**단독주택용지(약 80필지 보유)**

**나주혁신도시 인근토지 구함**

나주혁신도시·남평강변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상가건물◆

- 오차동 대지 330㎡ 건물 732㎡ 월수익 300만원 (추가임대수익예상) 매매가 7억9천만 원 1억5천만 원, 용지 1억5천만 원

◆상가매매◆

- 신원동 첨단지구 110㎡ 월수익4000원 임대료 8만원 (보증금 5천만 원) 용지4억 원 이동통신점 임점예정
- 신원동 첨단지구 66㎡ 호반주출입구 앞 이마트 주출입구위치 대문면 코너건물 핵심상권 449만원

**분양**

- 용두동 첨단지구12차 1100여세대대우상권 주출입구 앞 1층 48㎡ (단지독점형상권) m당544만원 매매가 2억6천만원
- 용두동 첨단지구12차 1100여세대대우상권 주출입구 앞 2층 47㎡ (단지독점형상권)m당 163만원(7천7백만원) -2구 직분양가능

**상가임대**

- 신원동첨단지구 호반주출입구앞 132㎡ 3층 보증금3000 /월140만원( 피아노노출입,미술학원,보습학원,영수학원등 학원밀집지역예상구역)
- 신원동첨단지구 호반주출입구앞 132㎡ 4층 보증금3000/월120만원(태권도학원,미술학원,보습학원,영수학원등 학원밀집지역 예상구역)

**상가주택매매**

- 신정동 하남지구 1층점포3칸, 2층 투-쓰리룸3개 3층복층안방 월수익550만 매7억3천만
- 월전동 홈16개 1층점포, 월수익650만 매6억원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010-8611-9009  
(건축·분양·대행·시행 상담)

### 금매매

**양산동**  
6차선 도로변  
**3층 건물(영업중)**  
1층, 2층 식당  
3층(가정집)  
대형 주차장 완비

**토지366평**  
**건물207평**

현 토지가격  
**450만원 정도**  
**15억**  
대형식당  
교회,피페(가능)  
개인사정으로 금매매  
(월세도가능)

010-3701-4767

###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렌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보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 NPL경매

▶배우면서 투자가능  
▶실전투자 사례교육  
▶1대1 개인지도  
▶교육비 550만원

(주)오현정매 H. 010-3605-5000

###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채무자 신용조사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